



수원 조동건이 3일 성남 원정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이자 결승골을 성공시킨 뒤 두 팔을 벌려 환호하고 있다.

성남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beanjiun

조동건, 단 한번 찬스서 V 폭죽...골 결정력 빛났다



정해성의 K리그 클래식 Q&A

성남-수원전

수원 왼쪽수비 홍철·MF 최재수 공격 물고
김두현 활용법·중앙수비 조직력은 숙제로
성남 루키 황의조 첫 경기 데뷔골 히트 예감

성남일화-수원삼성의 2013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1라운드가 벌어진 탄천종합운동장에 반가운 얼굴이 보였다. 정해성 전 전남 감독이었다. 2002한일월드컵 코치, 2010남아공 월드컵 수석코치로 한국축구를 월드컵 4강과 원정 첫 16강으로 이끌었고, 제주, 전남 감독을 역임했던 그는 올 시즌 SPOTV+ 해설위원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정 위원이 날카로운 눈으로 성남-수원전을 분석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서정진-조동건이 골을 터뜨린 수원이 황의조가 1골을 넣은 성남을 2-1로 눌렀다.

Q : 오늘 경기의 키포인트를 하나 꼽는다면.

A : 수원의 왼쪽 라인과 성남의 오른쪽 라인의 대결이 90분 내내 흥미진진했다. 수원은 왼쪽 풀백 홍철과 왼쪽 미드필더 최재수가 끊임없

이 상대 수비를 괴롭히며 공격의 물꼬를 텄다. 반대쪽 미드필더 서정진도 최재수와 활발하게 자리를 바꿔가며 힘을 보탤다. 이에 맞서는 성남도 만만치 않았다. 오른쪽 풀백 박진포와 오른쪽 미드필더 이현호가 성남 플레이의 주 동력원이었다. 이들 모두 비슷한 스타일이다. 공수 전환이 상당히 빠르고 체력과 투지가 뛰어난 측면 요원들의 맞대결이 축구를 보는 즐거움을 더했다.

Q : 수원 조동건이 결승골을 터뜨렸는데.

A : 골 결정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다. 사실 수원이 경기는 이겼지만 내용상 씩 좋지는 못했다. 조동건은 원래 타깃형 스트라이커가 더 맞는 선수인데, 이날은 정대세 뒤에서 새드 스트라이커 역할을 했다. 완벽히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전후반 내내 그리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는데, 딱 한번의 찬스 때 정확한 골로 팀에 승리를 안겼다.

Q : 수원 경기에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A : 가장 먼저 김두현에 대해 말하고 싶다. 수원은 4-4-2와 변형된 4-3-3을 적절히 섞어가며 경기 운영을 했다. 이 경우 팀에서 핵심 역할을 해 줘야 할 선수가 바로 김두현이다. 그

려나 기대 이하였다. 진공청소기처럼 상대 수비를 확실히 끊어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전방으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해주는 패스도 없었다. 한 마디로 좀 어정쩡했다. 볼도 많이 잡지 못했다. 수원의 경기력이 살아나려면 김두현의 활용방안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중앙 수비 조직력이다. 전반에 보스나-곽광선, 후반에 보스나-연제민 조합이었는데 호흡이 100%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원이 전반에 실점한 골도 중앙수비의 실수에서 나왔다.

Q : 성남 신인 황의조가 데뷔전에서 골 넣었는데.

A : 대학리그와 고연 경기전에서 황의조를 몇 차례 봤다. (황의조는 연세대 출신) 고려대 출신의 박희성이 올해 신인 중 대어로 평가받고 있는데 황의조도 그 못지않은 선수라 본다. 움직임도 좋고 감각이 뛰어나고 저돌적이다. 물론 상대 수비 실수를 틈타 골을 넣긴 했지만 신인이 첫 경기에서 득점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황의조는 자신감이 한층 커졌을 것이다. 앞으로 부상을 조심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좋은 공격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스포츠동아 해설위원·SPOTV+ 해설위원



수원 정대세(가운데)가 성남 수비진을 뚫고 과감한 오버헤드킥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성남 | 김종원 기자

한국무대 데뷔 정대세 “난 골 고프다”

성남과 개막전 톨타임...육탄전 불사
“다음엔 콤비 플레이로 찬스 노릴 것”

“I am hungry(나는 배가 고프다).”

북한대표팀 출신의 수원삼성 공격수 정대세(29)는 한 마리 굶주린 표범 같았다. 정대세는 3일 성남일화와 K리그 클래식 1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톨타임을 소화했다. 그의 한국무대 데뷔전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정대세는 거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았고, 저돌적으로 상대 문전을 해집었다. 자신보다 키가 15cm는 더 큰 성남 수비수 심우연과 공중 볼 다툼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다. 주심이 파울을 불어주지 않자 강하게 항의하는 등 90분

내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경기 후 취재진과 만난 정대세는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득점에 대한 간절함의 표현이었다. 정대세는 지난달 27일 센트럴코스트(호주)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선발 출전했지만 득점은 없었다. 이날도 정대세를 보기 위해 많은 언론과 팬이 몰렸지만 아쉽게도 골을 넣는 데 실패했다.

정대세는 경기출전에 대해서도 굶주려 있었다. 그는 지난 시즌 FC쾰른(독일)에서 거의 경기를 뛰지 못한 채 벤치만 달궜다. 승부욕 강한 그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반전의 계기로 한국 무대를 노크한 정대세에게 푸른 그라운드의 냄새와 팬들의 함성만큼 달콤한 것은 없었다.

정대세는 한국 수비를 높게 평가했다.

“한국 수비는 거칠고 몸싸움이 강하고 성격도 세다.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결코 기가 죽은 것은 아니었다. 정대세는 “(한국 수비가 강하다는 것은) 모두 예상했다. 대신 한국수비는 몰아서는 움직임이나 스피드는 느린 편이다. 나도 볼을 내주고 돌아 들어가는 콤비 플레이로 찬스를 노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대세는 “한국 팬들이 골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질문에 “이제까지 골을 위해서만 쫓을 했지만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에게 도움을 주는 게 낫다는 것도 깨달았다”며 “자신감이 생긴 만큼 조만간 골 감각도 올라갈 것이다. 적절한 시기, 즉 팀이 꼭 필요로 할 때가 되면 골을 넣겠다”고 여유를 보였다.

성남 |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부산 임상협 전반 2분 ‘벼락골’...최단시간 신기록



〈1R〉

부산 아이파크 임상협이 2013시즌 K리그 클래식 최단 시간 득점에 성공했고, ‘독도 남’ 박종우가 1골1도움을 기록했지만 부산은 승점 1을 따는 데 만족해야 했다. 부산은 3일 아시아대주경기장에서 열린 강원과 홈경기에서 2-2로 비겼다. 출발은 좋았다. 전반 2분 만에 박종우가 띄워준 프리킥을 임상협이 골 지역 중앙에서 헤딩 선제골을 성공시켜 리드를 잡았다. 후반도 시작이 좋았다. 휘슬이 울

린 지 불과 1분 뒤 박종우가 직접 페널티킥 추가 골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후반 6분 강원 지쿠에게 페널티킥 실점을 하며 쫓기기 시작했고, 결국 후반 24분 지쿠의 도움을 받은 배효성의 동점골에 다 잡은 승리를 놓쳤다.

전날(2일)에는 울산과 제주가 활짝 웃었다. 홈에서 대구를 맞이한 작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디펜딩챔피언 울산은 키오프 4분 만에 상대 신인 골게터 한승엽에게 오른발

중거리 포를 얻어맞았다. 올 시즌 1호골. 울산은 패색이 짙어진 종로 직전, 기적을 연출했다. 후반 44분 김치곤의 동점골에 이어 추가시간 김신욱의 골로 대역전극을 일궜다. 제주는 광양 원정에서 전반 28분 페드로의 결승골로 전반을 1-0으로 꺾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 팀 서울과 FA컵 챔피언 포항이 격돌한 상암별 승부는 2-2로 끝났다. 작년 11월 마지막 대결에서 0-5로 크게 패한 서울은 설욕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후반 38분 포항 이명주에게 동점골을 내줘 망을 쳤다. 포항 역시 2006년 8월부터 이어진 서울 원정 10경기(2무8패)째 무승을 이어갔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yoshike3

■오버헤드킥

아빠 오장은 분유값 투혼

새로 태어난 아들을 위한 값진 선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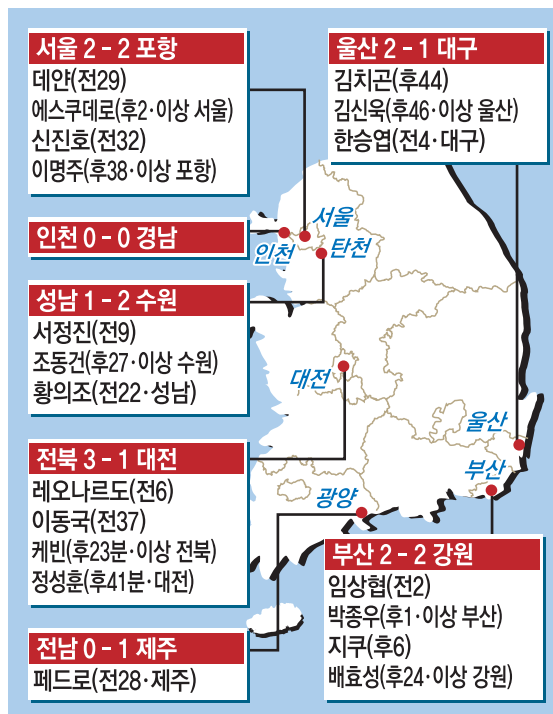
수원삼성 미드필더 오장은(28)은 3일 성남일화와 K리그 클래식 1라운드 원정을 하루 앞두고 득점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된 그의 각오는 남달랐다. 수원 서정원 감독은 “연승경기를 할 때 오장이 상대 수를 몰을 날리며 막아내더니 ‘기저귀 값을 벌었다’고 농담 해 모두가 한바탕 웃었다. 아들을 얻은 만큼 책임감도 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 동료들도 아낌없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정진은 이날 선제골을 넣은 뒤 요람 세리머니를 했다. 서정진은 “(오)장은 형이 어제 아들을 낳아 골을 넣는 선수가 요람 세리머니를 하기로 미리 약속했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오장은의 헌신도 빛났다. 오장은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중원에서 부지런한 플레이로 2-1 팀 승리에 힘을 보탤다. 프로선수들은 보통 경기에서 이기면 승리수당을 받는다. 오장은은 개막전 승리 뿐 아니라 아들의 분유와 기저귀 값도 특별히 벌어진 셈이다.

성남 | 윤태석 기자

K리그 클래식 1R 골잡이들



2013시즌 K리그 클래식 개막전 기록 모음

대회 첫 득점	대구 한승엽(전 4)
대회 첫 도움	제주 배일환(전 28)
대회 첫 교체	서울 윤일록 out 최태욱 in(전 30)
대회 첫 코너킥	서울 물리나(전 10)
대회 첫 파울	대구 김대일(전 2)
대회 첫 오프사이드	울산 한상운(전 7)
대회 첫 슈팅	대구 한승엽(전 4)
대회 첫 경고	울산 이용(전 17)

편집 | 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트위터@scl_do02